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포항 지곡성당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하느님의 나라를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 21,33-43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갖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룩한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가르쳐주실 뿐 아니라, 몸소 음식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가락에 주님의 몸이 닿은 것을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 전능하신 분을 우리 몸속에 모시고 다닌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제1독서 이사 5,1-7

제2독서 필리 4,6-9

복 음 마태 21,33-43

입 당 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화 답 송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군인들에게 사랑을

여현국 디모테오 신부 | 군종교구 필승성당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30사단 필승성당에서 군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군종신부입니다. 지난 4월 말, 훈련을 받으러 괴산으로 향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군종신부로 임관한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군인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고 군종신부가 되어 군대에 와 있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신자들에게 신부가 필요하듯이 군인들에게는 군종신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종신부는 군인들과 똑같이 군복을 입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훈련을 받고, 다양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육군 30사단인데, 공교롭게도 전역을 하고 나면 돌아놓지도 않는다는 ‘출신 부대’입니다. 2004년부터 이곳에서 2년 동안 병사로 근무했었는데, 이번에 군종장교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예전 병사 때 기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사단 성당과는 거리가 멀어서 6개월 동안 미사 참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대축일에도 연병장 한 귀퉁이에서 가톨릭기도서와 매일미사 책을 보며 공소예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당시 군종신부님이 제가 있던 부대까지 매주 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성당도

없이 옆 부대 공소를 빌려서 미사 참례를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매 주일이면 차에 간식을 한가득 싣고 미사도구를 챙겨서 파주로, 송추로, 원당으로 미사를 다닙니다. 공소에 도착하면 이 부대, 저 부대에서 온 병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신자들보다 비신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아니더라도 함께 소리를 모아 성가를 부르고, 각자 나름대로 기도를 드립니다. 미사를 마치면 차에 싣고 간 초코파이와 음료를 나누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또 다른 공소를 향해 출발합니다.

꼭 미사뿐만이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군인들에게는 더더욱 신부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저희 군종신부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군인주일을 맞아, 고향을 떠나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필승**

제47차 군인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담화문(요약)

사랑 안에서 예수그리스도께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47회 군인주일을 맞이하여 군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군종사제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결같은 사랑으로 국군장병들과 군종교구를 위해 기도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끊었다면 군대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탯줄을 끊고 자립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립은 관계의 단절과 결핍 때문에 고독과 두려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복음의 기쁨 87항). 교회는 이렇게 종교를 찾고, 하느님을 찾는 장병들에게 애덕을 통해 선교 사업을 합니다. 애덕은 복음 선교의 언어이자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적 활동입니다. 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고, “애덕을 보면 삼위일체를 보는 것”입니다(정의와 평화의 봉사자 334항).

그래서 군종교구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라는 사목목표를 세우고 사랑으로 장병들에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장병들의 육적,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고, 교회 본연의 모습인 친교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서너 가정의 200~300명 되는 장병을 돌보

고 하고, 가족이 없는 곳은 군종신부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대대와 연대 장병들을 위해 소속부대 지역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야간에 근무하는 장병을 위해 위문을 다닙니다. 하느님께 돌아오는 장병의 모습에서, 힘든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군종신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며 꼬깃꼬깃 넣어두었던 씹지 돈을 손에 쥐어 주시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격려를 받습니다.

요즈음 군대에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군의 시스템 문제만이 아닌 인성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살펴볼 기회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려는 장병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는 군종신부들을 위해 군종교구민과 한국교회 모든 신자분들의 더욱 많은 기도와 도움이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복음의 기쁨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 열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2014년 10월 5일

천주교 군종교구장 유수일(F.히비에르) 주교



사목단상

서로 도와 참되이 새 사람이 되자!

- 이 가을에 새얼학교 새얼인을 생각하며 -

최홍길 레오 신부 | 수성본당 주임

33년 만에 이른 추석명절을 지낸 탓인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다. 높고 청명한 하늘과 뜨겁고 건조한 날씨를 체감하며 완연한 가을 속에 7~80년대 가톨릭문화관 시절 지하 새얼학교, ‘낮에 공부하고 밤에 가르치는’ 대학생 교사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근로청 소년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한 얼굴 얼굴들을 그려본다.

‘서로 도와 참되이 새 사람이 되자!’ 이는 새얼학교 교훈이다. 이 시대 사회와 교회에 이바지하는 ‘새 정신 새 사람이 되자’는 것이 새얼학교의 장학목표였고 참되고 자랑스러운 새얼인으로 사는 데 사목적,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였다고 할 것이다. 지난 78년 1월, 교구 사목국이 있던 가톨릭문화관에 부임하고 교구 대학생 연합회 지도신부로서 먼저 시작한 일 가운데 하나가 77년 11월 대학생연합회의 몇몇 뜻있는 대학생들에 의해 초등부 과정 도미니코 학교로 운영되던 이른바 새얼학교의 개교였다. 교구 주일학교 연합회(교장단)의 도움에 힘입어 78년 3월 정식으로 새얼학교라는 교명을 정하고 3월 6일 가톨릭문화관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가지며 초중등부 과정 야간학교를 열게 되었다.

교훈과 교가를 제정하고 학교 수호자로 젊은이들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인 첫 사제이며 민족의 선각인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를, 개교기념일을 수호자 대축일인 7월 5일로, 또한 교화(校花)를 하느님 바라기를 지

향하며 해바라기로, 교조(校鳥)를 새 정신 새 사람 새얼을 따라 성령을 표상하는 비둘기로 정하며 성령의 그느르심을 기원하였다. 또한 당시 중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경상북도 지구 전체 수석 합격자가 나오고, 1981년 고등부 과정 신설 후 고교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생이 되어 다시 교사로 봉사하는 이가 나오는 등 교구와 교회학교와 뜻있는 이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원 속에 자랑스러운 면면을 많이 보이며 착실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다. 뒤돌아보면, 새얼의 밤, 동창회, 새얼교사의 날, 개교기념 체육대회, 새얼가족 수련대회, 새얼가족잔치 재상봉의 날, 수학여행, 소풍, 회보와 교지 발간, 한글교실 운영 등등 행사도 많았고 일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고 모두 공부도 참으로 열심히 했으며 교회 안팎의 언론매체에도 소개되는 등 모범적인 야학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시간 따라 세월 따라 제반 환경과 여건과 사정이 달라진 탓인지, 지난 2011년 7월 23일(토) 늦은 7시 문화관 2층 대강당에서 중등부 33회 고등부 29회 - 그 동안 중등부 345명, 고등부 235명 등 580명에 이르는 - 19명의 마지막 졸업생을 내면서 33년여 세월 동안 열심히 달려온 새얼학교가 역사의 뒤편길로 떠나갔다는 소식이다. 아련한 그리움과 절실함으로 새얼학교 새얼인을 가슴에 새기며, 모두들 지금 어느 하늘아래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기도와 미사 중에 함께하며 전도를 축원한다. **✠**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케이트 오그(Kate Ogg)는 임신 27주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딸 에이미는 건강했지만 아들 제이미는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사력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20분이 지나도록 아이는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했고 케이트와 남편은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탁드려요. 제발, 마지막으로 아기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방금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의료진은 아기를 엄마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숨이 멈춘 아기를 안고 엄마는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2시간 넘게 “사랑한다... 아가야...” 라고 말하고 쓰다듬고 키스를 하고, 아기의 입을 열어 젖을 물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숨을 쉬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아기의 손가락도 움직였습니다.

자식을 향한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 기적 같은 엄마의 사랑으로 우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인

10월 5일	성녀 갈라(과부, 로마, 550년경), 성 플라치도(수도승, 순교자, 메시나, 6세기경) 성 아폴리나리스(주교, 비엔, 453~520년), 성녀 플로라(동정녀, 볼리외, 1309~1347년) 성녀 플라비아(동정 순교자, 6세기경)
10월 6일	성 마노(주교, 헤라클레아, 660년경), 성 브루노(신부, 설립자, 1032~1101년) 성녀 마리아 프란치스카(동정녀, 3회원, 나폴리, 1715~1791년), 성녀 피데스(동정 순교자, 아쟁, 286년)
10월 7일	성 마르첼로(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1세기), 성 바코(순교자, 시리아, 303년) 성녀 유스티나(동정 순교자, 파도바)
10월 8일	성 시메온(신약인물, 예언자, 1세기경), 성녀 타이스(통회자, 4~5세기경) 성녀 레파라타(동정 순교자)
10월 9일	성 디오니시오(판사, 주교, 순교자, 아레오파고, 1세기), 성녀 사라(구약인물) 성 사비노(은수자, 라브당, 5세기경), 성 루도비코 베르트란도(신부, 설교자, 선교사, 1526~1581년) 성 요한 레오나르디(신부, 설립자, 1541~1609년), 성녀 푸블리아(과부, 수녀원장, 증거자, 4세기)
10월 10일	성 다니엘(신부, 순교자, 모로코, 1227년), 성 바울리노(주교, 선교사, 요크, 644년) 성녀 에울람피아(동정 순교자, 310년경), 성 에울람피오(순교자, 310년경) 성 제레온(순교자, 쾰른, 4세기 초), 성 프란치스코 보르자(신부, 총장, 아라곤, 1510~1572년)
10월 11일	성 브루노(대주교, 쾰른, 925~965년), 성 아길베르토(주교, 파리, 685년) 성 알렉산데르 사울리(주교, 파비아, 1534~1592년), 성녀 피엔시아(동정 순교자, 285년) 성 타라코(순교자, 239~304년)

■ 1,3대리구 교구장대리 취임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9월 24일(수) 오후 7시 30분 주교좌 계산성당에서 1대리구 교구장대리 황용식(타대오) 신부 취임미사를 봉헌하시고, 9월 26일(금) 오후 7시 30분 월성성당에서 3대리구 교구장대리 이성한(베르나르도) 신부 취임미사를 봉헌하셨다.

■ 2014 카리타스 문화축제



대주교님께서는 9월 26일(금) 오전 11시 대구시민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2014 카리타스 문화축제에 참석하시어 함께한 이들을 격려하셨다.

■ 수성성당 50주년 및 견진성사



대주교님께서는 9월 28일(일) 오전 11시 수성성당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시고, 248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오늘 뿐만 아니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10월 6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0월 6일(월) 11:00 죽도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0월 6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0월 6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성당

성소 | 피정

성소 식별 모임

기간: 10.11(토) 17:00~12(일) 13: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생 이상~
만 32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0.11(토) 14:00
장소: 예수회 관구본부(서강대학교 옆)
주제: 미션(Mission) 아프리카 선교사의 삶
문의: (010)6483-4008
<http://cafe.daum.net/vocsj>

1일 구마치유 피정(이성익 신부)

일시: 10.18(토) 14:00~18:00 / 미사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평리동)
추수감사미사: 10.26(일) 13:00~18:00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본리성당 향심기도 피정-인간조건, 중독

일자: 10.8(수), 10(금) 양일간
시간: 19:30~22:00, 본리성당
강사: 이청준(F.하비에르), 거창성당
문의: (010)7795-0639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0.11(토) 10:00, 다사성당

주제: 고통의 어머니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서울 삼성산 10월 2박 3일 대피정

기간: 10.10(금) 18:00~12(일) 15:00
문의: (010)3310-8826 / (02)874-6346

예수마음배움터 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0.31(금) 17:30~11.2(일)
4박 5일: 10.20(월) 14:00~24(금)
8박 9일: 11.24(일) 14:00~12.2(화)
문의: (031)946-2337~8

제주 자연 피정

기간: 11.2~5 / 11.10~13 / 11.15~18
11.19~22 / 12.1~4 / 12.31~1.3
문의: 성이시돌피정센터, (02)773-1455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자와 함께하는 평화, 성지순례,
매일미사, 올레길, 오름 트레킹, 관광
일시: 11.6(목)~8(토) / 11.24(월)~26(수)
12.13(토)~15(일)
문의: (02)773-1463

교육 | 모집

애니어그램 영성수련

기간: 10.18(토)~19(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다음카페: 우아청 참초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자아발견 애니어그램

기간: 10.25(토) 15:00~26(일) 15:00
대상: 미혼 여성 / 비용: 3만 원
신청: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2649-2045

제3회 가정성화를 위한 성체거동 도보순례

일시: 10.26(일) 10:00
장소: 어농 성지에서~단내 성가정 성지
미사: 단내 성가정 성지 15:00
비고: 점심 무료 제공
신청: 수원단내성가정성지, (031)633-9531

김길수 사도요한 교수와 함께 하는 순례

주옥 같은 일본 성지 순례
장소: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눈물나는 순교영성의 중국 성지순례
장소: 상해, 소주(주문모, 김대건, 최양업)
문의: 성모승천수도회, (010)4239-1929

가톨릭상지대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가 운영하는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2차 모집: 11.4(화)~18(화)
대학 홈페이지(<http://www.csj.ac.kr>)
문의: 교무처, (054)851-3011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일본 성지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4일) / 오이타, 유우인 (4일)
※ 출발일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대구연세안과
· 아이라식 · 안내렌즈
· 노안수술 · 백내장수술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충원(소시모)
☎(053)626-8881~5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HS 히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성요셉요양병원
(구. 농국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용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용,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JINSUNG 진 성 건 축
Architects & Interior
건축사·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전원주택
성 호 근(다니엘)
이 중 배(안드레아)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애플비노기과
www.appleuro.com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행사 | 모임

산격성당 은혜의 밤

일시: 10.8(수) 19:00, 산격성당
강사: 한상우(바오로) 신부(구속주회 수도회)

대구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 대음악회

일시: 10.16(목) 19:30
장소: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입장료 무료)
문의: 850-3803 / (010)7142-1061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교수 협연

대구평화방송 개교18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10.17(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영록, 소냐, 유엔젤보이스, 강혜정
예매: 티켓링크, www.dgpbcc.co.kr
전화예매 / 문의: 251-2610(전석2만 원)

미술가회 창립40주년기념전 및 100주년 기념 대성당 '사랑의 성전' 건립기금 마련전

일시: 10.7(화)~12(일), 대백프라자 갤러리

10월 화요기획_고리 콘서트

일시: 매주 화 20:00~21:00(5천 원)
장소: 아트센터 고리(남산동산학교전 200m)
내용: 클래식(10.7), 생활성가(10.14),
대중가요(10.21), 포크(10.28)
주최: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010)9577-7819

교육 | 모집

25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10.16~11.20(매주 목) 9:30~14:30

장소: 가창성당 / 회비: 10만 원
문의: 교구 가정담당, (010)6499-3114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의 날

일시: 11.14(금) 17: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
문의: 노인사목담당, 250-3076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신앙특강

일시: 10.18(토) 10:00, 남산동신학대학
주제: 그리스도인의 미션
강사: 인마누엘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성인, 어린이),
바이올린, 오카리나, 초크아트, POP,
토편팅, 백세건강 / 문의: 476-6211

베네딕도 청년성가단 3기 모집

일시: 매주 월 19:30, 삼덕성당
대상: 전례음악과 합창에 관심있는 청년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원, (010)5918-3014

상장예식채보자 / 김득수회장초청 연도심화교육과 가톨릭상장례전례

1차: 10.18~19 / 2차: 10.25~26
3차: 11.8~9 / 교육비: 1인 5만 원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555-4404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신입생 모집

설명회: 2차 10.18(토) 14:00, 대건고
원서접수: 11.4(화)~7(금)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입학문의: 638-9332

花요일아침예술고 신입생 모집(서울대교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여 꿈을 열어주는 학력인정대안학교
기간: 10.24(금)~11.4(화)
대상: 저소득층 회화전공 지원
모범적인학생, 문의: (070)8891-3830

채용 |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범어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추천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마감: 10.17(금), 문의: 744-1394

2015년 해성유치원 교사 채용

위치: 북구 사수동(베네딕도수녀원 내)
모집분야: 유치원 정교사 00명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heasung1100@hanmail.net로 접수
문의: (010)8712-3651

교구 신자 상호별 전화번호부 발행 줄광고(무료) 및 유료광고 신청

대상: 교구 내 신자 사업자
문의: 본당 사무실 또는 길간(빛) 총무부
250-3158 / 252-5392

국가자격 장례 지도사

국비지원제좌제 및 일반반 모집

- ▶ 취업준비생 ▶ 퇴직준비하시는 분
- ▶ 창업하실분 ▶ 남녀,나이,학력 제한없음

※ 무시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경장례지도사교육원
(경상북도 지정 제4호)

☎ 053)813-7006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주택산업
이정수 마타야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본도의 한방을 기쁨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본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창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